



주요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 **(검토 배경)** 최근 주요국 정책당국자가 고용회복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파월 연준의장, "Fed는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에 강한 책임감 (strongly committed)을 느낀다"고 발언(21.2월 뉴욕 이코노믹클럽 강연)

○ 향후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높지만 경기회복에 고용이 어느 정도 동반될지는 불확실

⇒ 이에 미국, 유럽 등 주요국 중심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진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고용회복을 전망

◆ (주요국 고용상황)

(1) 금융위기보다 여전히 부진한 수준

□ **(취업자수)** 주요국 취업자수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당폭 늘어났으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부진한 수준

○ 주요국 취업자수는 지난해 감소폭이 4월 -7.8%(19.12월 대비)에서 12월 -3.1%로 줄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당시의 감소 수준(최대 -2.8%)을 상회

○ 국가별로는 미국이 현재까지도 취업자 감소율이 가장 크며 유로지역의 경우 경기 위축 수준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크지 않은 모습

□ **(근로시간)**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근로시간도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SURE법 등 고용유지제도 도입으로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이 실시

○ 주요국 근로시간은 지난해 2/4분기 -3.6%까지 감소(19.12월 대비)하였다가 4/4분기들어 금융위기 당시 최대 감소폭인 -0.8%까지 회복

(2) 최근 고용 개선세 주춤

□ 고용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해 4/4분기부터 개선세가 주춤

- 미국의 경우 고용이 서비스업 경기에 연동하는 가운데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세 심화로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며 개선세가 주춤*한 모습이며, 유로지역의 경우 근로시간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3월 들어 백신 조기 보급, 경기부양책,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개선세가 재개

(3) 실업 고착화 조짐

-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가 증가하면서 경력단절, 구직의욕 상실 등으로 실업이 고착화될 우려(Citi)
- 경제활동참가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통상적인 경기침체기와 달리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기(-0.6%p)보다 크게 하락(-0.9%p)

◆ (향후 고용회복 전망)

(1) 단기 전망(향후 1~2년 이내)

① 보건위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고용개선 확대)

- 2/4분기부터 경기회복과 함께 감염우려로 위축되었던 부문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빨라질 전망
- 백신 보급에 따라 서비스 소비 및 소상공인 영업재개 확대 등으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등교 재개, 감염 우려 감소 등으로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정부 고용지원 축소(고용개선 제약)

- 유럽의 경우 향후 업황회복에 대해 기업이 근로시간 확대로 대응하고 정부가 고용지원을 축소하면서 고용회복이 제약될 소지
 - 고용유지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업황 회복시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제도 이용을 통한 고용을 줄일 가능성
 -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원제도 대상자 일부가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 * 재정건전성 악화, 이직 및 재훈련 유인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불가피할 전망

(2) 중장기 전망

① 영세업체 위축과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고용개선 제약)

- (영세업체 위축) 팬데믹으로 휴업중인 영세업체 중 일부는 영업재개에 실패하면서 고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Althoff et al., 2020.12월)

- 재무적 기업파산은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이동제한 및 업황 악화로 폐업·휴업중인 영세업체는 크게 증가

□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 대형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노동투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Loecker et al., 2020.5월)

- 팬데믹으로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이 중시되면서 하이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기업의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

② **생산방식 및 소비행태 변화(고용개선 제약)**

□ **(재택근무 및 자동화)** 재택근무 확산 및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 확대로 종전 일자리가 상당폭 소멸될 가능성(Gopinath, IMF, 2021.4월)

-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일부 지속되면서 운수, 사무실 관리 지원, 인근 식당 등 관련 일자리가 감소

□ **(온라인소비 확대)** 온라인소비 확대도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를 축소

-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소비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쇼핑, 콘텐츠 스트리밍(Netflix 등), 배달전문식당(ghost kitchen) 등 비대면 소비가 확산

◆ **(결론 및 시사점)** 최근 주요국 고용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저조한 상황이나 금년 2/4분기부터는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당분간 고용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영세업체 위축 및 대형기업 점유율 확대와 함께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 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약(jobless recovery)되면서 고용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소지

- 이러한 점에서 장기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동화 경제구조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에 대한 관련 교육·훈련 기회 지원 등이 긴급

* 전문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직종,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등

목 차

I. 검토 배경	4
II. 주요국 고용상황	5
III. 향후 고용회복 전망	10
1. 단기 전망	11
2. 중장기 전망	13
IV. 결론 및 시사점	17

I

검토 배경

□ 최근 주요국 정책당국자가 고용회복을 강조*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파월 연준의장, “Fed는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데 강한 책임감 (strongly committed)을 느낀다”고 발언(2021.2월 뉴욕 이코노믹클럽 강연)

○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고용회복은 노동수요 확대를 통한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주목

* 라가르드 ECB총재, 현재는 “노동 및 상품시장의 수요 부진 및 여력(slack)을 감안하면 물가 압력은 낮다”고 평가(2021.3월 기자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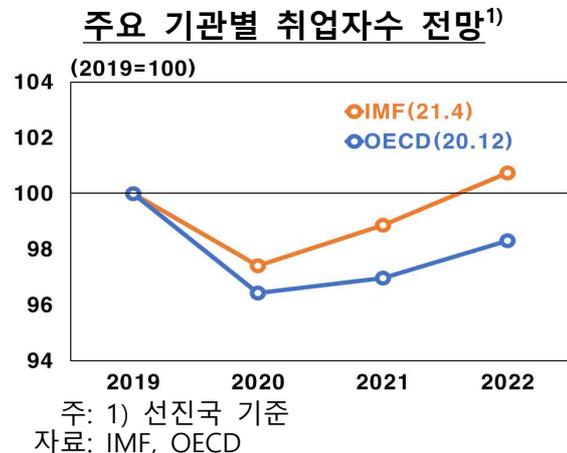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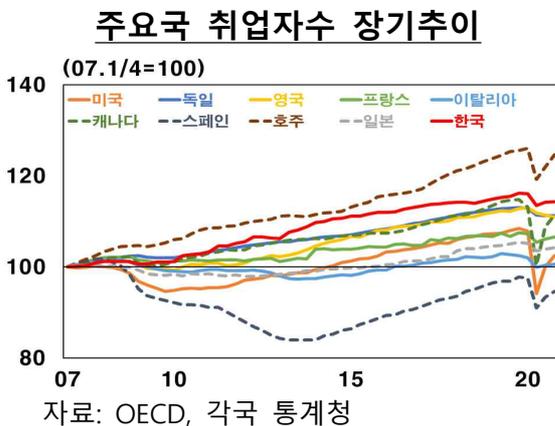
□ 향후 코로나19 진정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높지만 경기회복에 고용이 어느 정도 동반될지는 불확실한 상황

○ 초기에는 감염사태가 진정되면 고용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컸으나 최근에는 구조변화 등에 따른 실업 장기화 우려가 제기

* 초기 고용감소가 대부분 일시해고(temporary layoff)였던 데다 경제활동 재개 이후 주요국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였던 데 기인

⇒ 본고에서는 주요국*을 중심으로 최근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진정 시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고용회복을 전망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경제규모 상위 10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IMF(2021), OECD(2020) 등의 방법론을 원용, 그룹화하여 분석



II

주요국 고용상황

- ◆ 현재 주요국 고용상황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당부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부진한 상황
 - 특히 최근 들어서는 고용 개선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기업들의 채용계획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
- ◆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가 늘어나고 있어 실업 고착화 가능성도 제기

금융위기보다 여전히 저조한 수준

□ (취업자수) 주요국 취업자수는 경제활동 재개 이후 상당폭 늘어났으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부진한 수준

○ 주요국 취업자수는 감소폭이 지난해 4월 위기직전대비(2019.12월) -7.8%(3,381만명)까지 커졌다가 12월 -3.1%(1,339만명) 수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감소폭(최대 -2.8%)을 상회

▪ 국가별로는 코로나 확산 초기 미국*, 캐나다, 호주의 취업자수 감소율이 컸으며, 미국은 고용이 상당부분 회복된 현재까지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

* 취업자수 측면에서도 미국은 지난 4월 주요국 감소의 75.0%(미국 2,537만명 / 주요국 3,381만명), 12월중 기준으로는 66.5%(미국 891만명 / 주요국 1,339만명)를 설명

▪ 업종별로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서비스업의 취업자수 감소가 대부분을 차지

* 20년 취업자수(전년대비)	제조업 기여도	건설업 기여도	서비스업 기여도
-3.2%(100.0%)	-0.5%p(16.5%)	-0.2%p(6.0%)	-2.3%p(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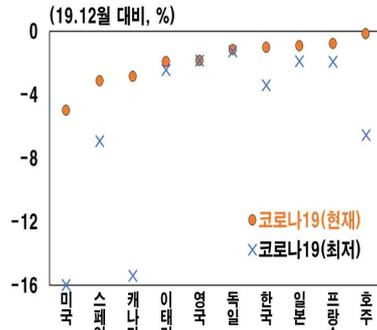
○ 다만 유로지역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 경기위축 정도에 비해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모습

주요국 취업자수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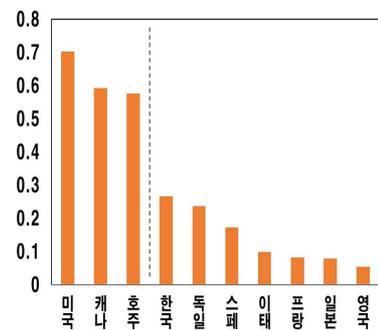
주: 1) 금융위기 08.10월, 코로나19 19.12월 기준
자료: OECD, 각국 통계청

취업자수 감소율¹⁾



주: 1) 최근 공표통계 기준
자료: OECD, 각국 통계청

성장 대비 고용 감소¹⁾



주: 1) 고용률 감소폭/성장률 감소폭 (전년대비, %p)
자료: ILO, 각국 통계청

□ (근로시간)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였던 근로시간도 상당 정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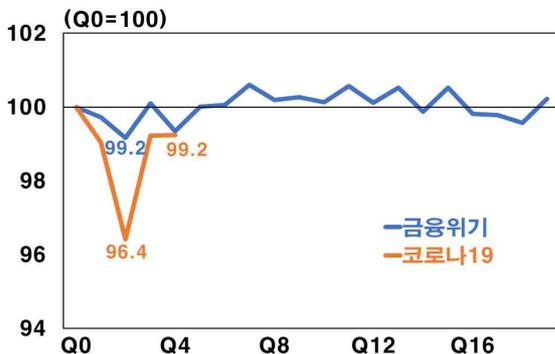
○ 주요국 근로시간은 지난해 2/4분기 위기직전대비(2019.4/4) -3.6%까지 감소하였으나 4/4분기들어 금융위기 최대 감소폭인 -0.8%에 도달

▪ 특히 유럽의 경우 SURE*법 등 고용유지제도에 힘입어 고용이 유지**되고 있으나 단축근로, 일시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시간은 크게 감소

* The Temporary 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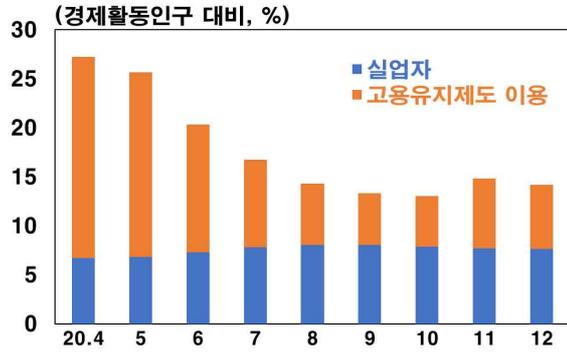
** 유럽 주요국의 고용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4월중 경제활동인구의 20%에 달했으며 2020년말 현재에도 6% 정도 수준

주요국 근로시간¹⁾²⁾



주: 1) 경제규모 기준 가중평균
2) 금융위기 2008.4/4분기, 코로나19 2019.4/4분기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유럽¹⁾ 고용유지제도 이용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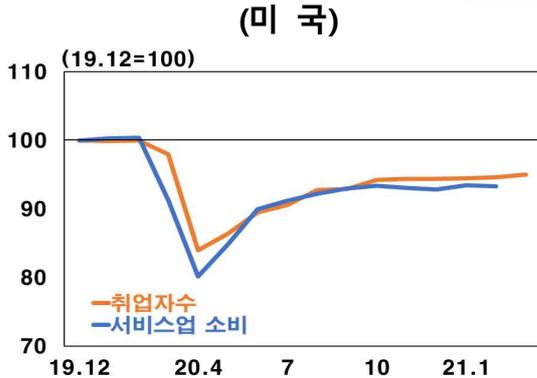


주: 1)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자료: OECD, ING, 각국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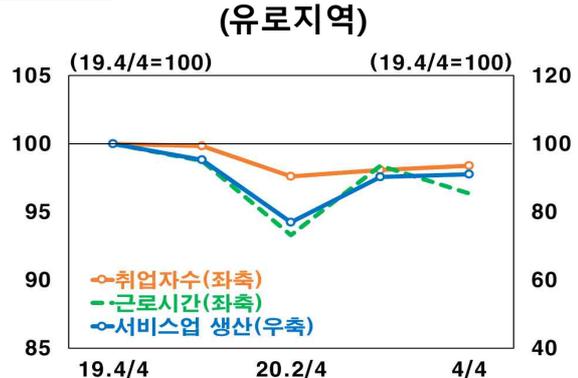
최근 고용 개선세 주춤

- 고용 회복이 부진한 상황에서 지난해 4/4분기부터 개선세가 주춤해지
는 모습
 - 미국의 경우 고용이 서비스업 경기에 연동하는 가운데 겨울철 코로나
19 확산세 심화로 서비스업 회복이 지연되며 개선세 주춤
 - 다만 3월 들어 다른 선진국과 달리 백신 조기 보급, 대규모 경기부
양책,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개선세가 재개
 - 유로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서비스업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근로시간이 다시 감소세로 전환
 - 한편 고용은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별다른 개선세가 감지되고 있
지 않은 상황

주요국 취업자수



자료: BLS, Bloomberg



주: 1)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 경
제규모 기준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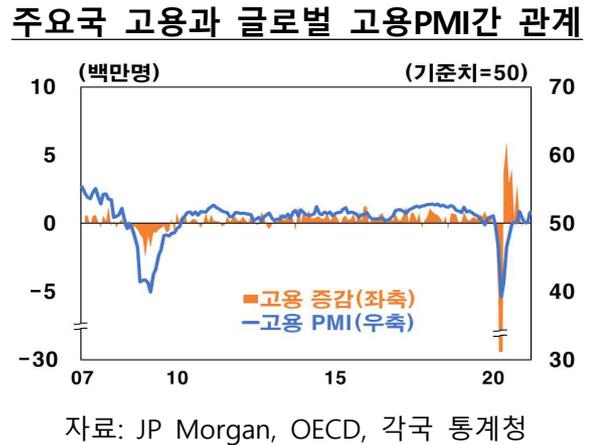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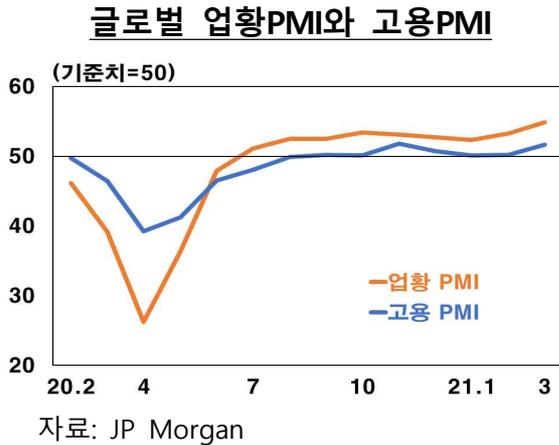
자료: OECD, 각국 통계청

- 백신 보급, 재정정책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는 커지고 있으나 현재
까지 기업의 인력충원 계획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
 - 글로벌 업황PMI가 기준치를 계속 상회하는 데 반해 고용PMI*는 3월
까지 기준치 근방에서 횡보

* JP Morgan에서 매월 40개국, 13,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전월대비 고용 증감 여부를 조사

- 고용증가와 고용PMI의 시차관계(당월 및 1개월)를 감안하면 3월까지의 개선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

(시차상관계수)	<u>고용증가(-1개월)</u>	<u>고용증가(당월)</u>	<u>고용증가(+1개월)</u>	<u>고용증가(+2개월)</u>
▶고용PMI	0.12	0.38	0.40	0.26



실업 고착화 조짐

- 노동시장 이탈이 확대된 가운데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가 증가하면서 경력단절, 구직의욕 상실 등으로 실업이 고착화될 우려(Citi)

- (경제활동참가율 하락) 통상 경제활동참가율은 경기침체기에도 안정적이지만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기(-0.6%p)보다 크게 하락*(-0.9%p)하고 최근에도 낮은 수준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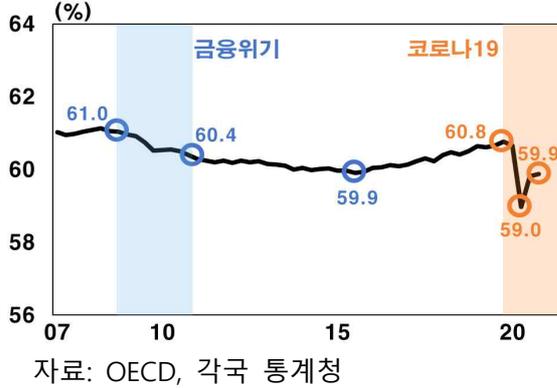
* 코로나19 이후 취업자수 감소분의 1/3 수준에 대응

- 특히 금융위기 당시에는 2년여 기간(2008.4/4~10.4/4)에 걸쳐 완만하게 0.6%p 하락*하였으나 지난해에는 2분기 만에 1.8%p까지 감소한 후 일부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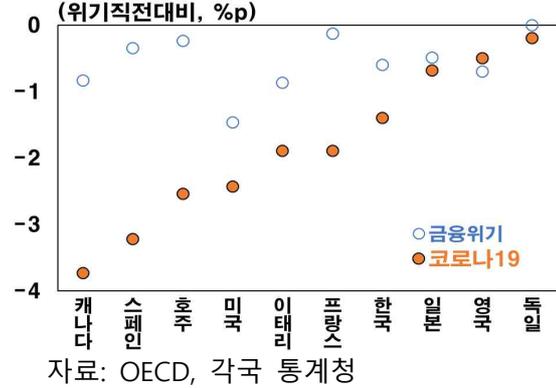
* 경기침체가 회복되기 시작한 2015년까지는 8년에 걸쳐 총 1.1%p 하락

** 2019.4/4 60.8% → 2020.2/4 59.0% → 4/4 59.9%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주요국 경제활동참가율 감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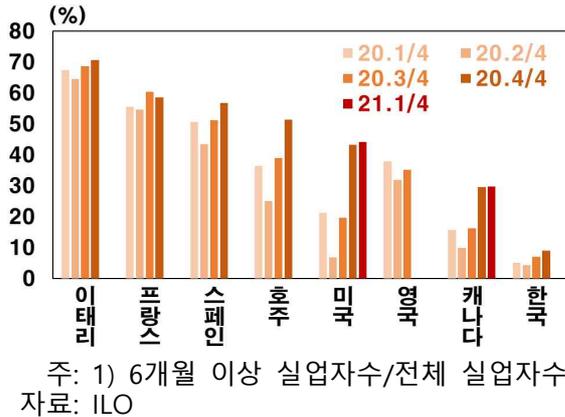


-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 증가) 주요국의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미국은 종전직장 복귀가 기대되는 일시해고(temporary layoff)*는 감소한 반면 그렇지 못한 영구해고(permanent layoff)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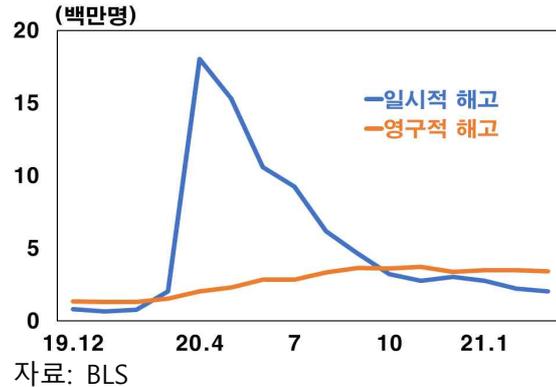
* 실직시 6개월 이내 종전 직장으로 복귀하기로 약속하였거나 기대되는 경우

- 실업자의 재취업 지연에 따른 구직의욕 상실 및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주요국 장기실업 비율¹⁾



미국 해고 유형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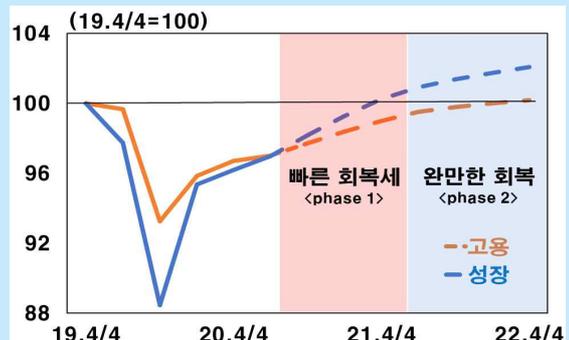
향후 고용회복 전망

- ◆ 주요국의 경우 금년 2/4분기부터 단기적으로 서비스업 정상화 등에 힘입어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전망(phase 1)
 - 다만 유럽은 업황회복 효과가 당분간 근로시간 확대로 이어지면서 본격적 고용회복은 제약
- ◆ 중장기적으로는 노동투입 비중이 높은 영세업체가 위축되는 가운데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행태로 고용확대가 종전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소지(phase 2)
 - 동 변화가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지만 고용구조가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이직, 재훈련 등을 통한 적응에 시간이 소요

주요 여건별 고용효과 및 지속기간



주요국 경기 및 고용 회복경로



자료: 한국은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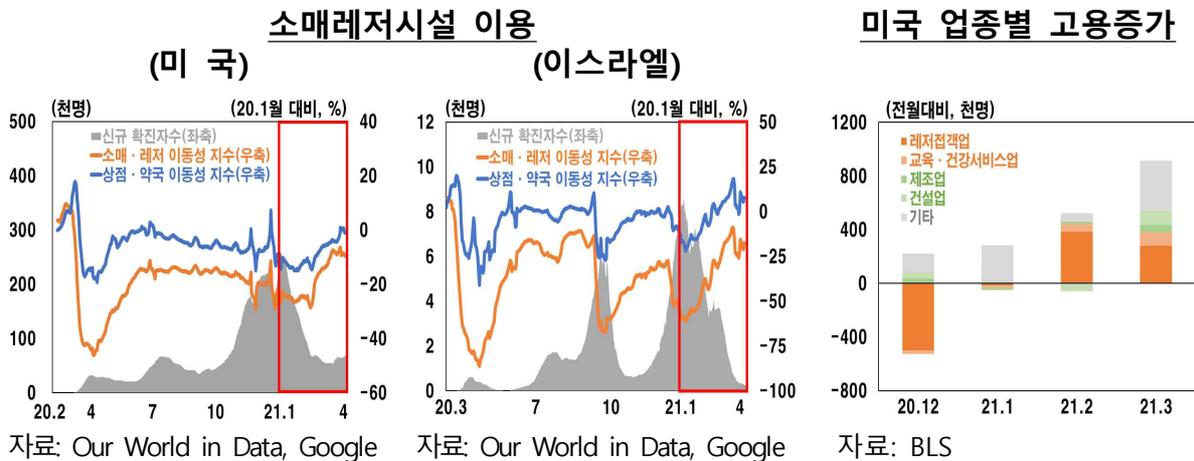
- 향후 고용회복은 ① 보건위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② 고용지원 제도 축소, ③ 영세업체의 위축, ④ 생산방식 및 소비형태 변화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 받을 전망
 - 백신보급과 함께 집단면역이 완성되고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시점을 경계로 고용회복 속도가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두 가지 국면(two phases)으로 구분
 - 선진국은 대체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1년후를 경계*로 고용회복 국면이 변화할 가능성

*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방향'(국제경제리뷰 제2021-5호) 참고

1 단기 전망(향후 1~2년 이내)

보건위기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고용개선 확대)

- 금번 고용 충격의 근본적 원인인 보건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하면 감염 우려로 위축되었던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세가 빨라질 전망
- 백신 보급에 따라 서비스 소비 및 소상공인 영업재개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노동수요가 증가
 - 미국은 3월중 이동제한조치 완화 등으로 레저 및 상점시설 이용이 급증하며 레저접객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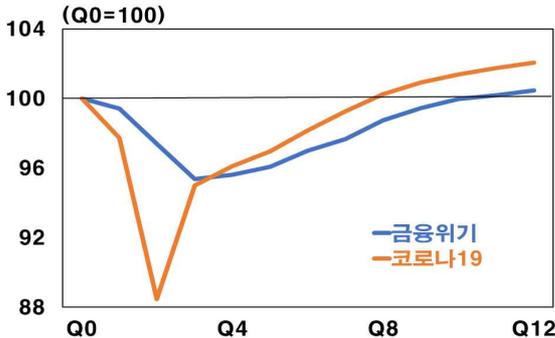
- 등교 재개, 감염 우려 감소 등으로 여성 및 고령자를 중심으로 노동 공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년 2/4분기부터 고용 개선은 과거 경기침체 이후의 회복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 Sheiner et al., Brookings, 2021.3월

- 노동집약적 서비스업 및 저임금·단순직*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경기회복의 고용유발효과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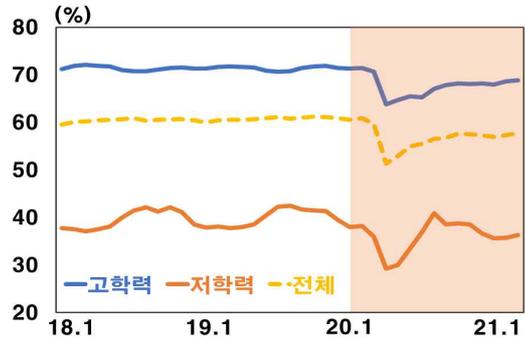
* 저학력 노동자의 고용이 고학력자에 비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선진국 경기침체 이후 회복경로¹⁾



주: 1) Q0는 금융위기 08.2/4, 코로나19 19.4/4
자료: IMF, 자체 추정

미국 학력수준별 고용률



자료: ILO

⇒ 주요 선진국 고용은 금년 2/4분기를 지나면서 보건위기 완화에 따라 과거 경기침체 이후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전망

정부 고용지원 축소(고용개선 제약)

- 유럽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줄어 있어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근로시간 확대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
 - 2020년말 현재 주요 5개국(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고용 유지제도 이용자는 1,000만명을 상회(5개국 경제활동인구 6.3%)
 - 대면서비스업*에서 고용 유지제도를 적극 이용하고 있어 업황 회복시 고용보다는 근로시간을 늘리면서 제도 이용을 줄일 가능성
 - * 독일의 경우 2021.1월 현재 제조업 근로자는 9%가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반면 호텔, 레스토랑 업계 근로자 56%가 지원받는 것으로 추정(IFO)
-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정부의 고용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원제도 대상자 일부가 실업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상존
 -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각국 정부는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원혜택 및 범위를 축소해 나갈 계획
 - 이 경우 고용유지 비용이 누증되면서 재고용 비용 절감 및 숙련노동자 확보 효과를 상회하는 경우 고용조정이 발생할 가능성

- 실업 증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이직 및 재훈련 유인감소 등 부작용으로 인해 지원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

* 라가르드 ECB총재, “각국은 재정절벽(cliff-edge) 위험을 인식하고 2021년까지는 고용 보호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2021.2월)

⇒ 유럽의 경우 향후 업황회복에 대해 기업이 근로시간 확대로 대응하고 정부가 고용지원을 축소하면서 고용회복이 제약될 소지

2 중장기 전망

영세업체 위축과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고용개선 제약)

- (영세업체 위축) 팬데믹으로 휴업중인 영세업체 중 일부는 영업재개에 실패하면서 고용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 Althoff et al., “The city paradox: skilled service and remote work”, 2020.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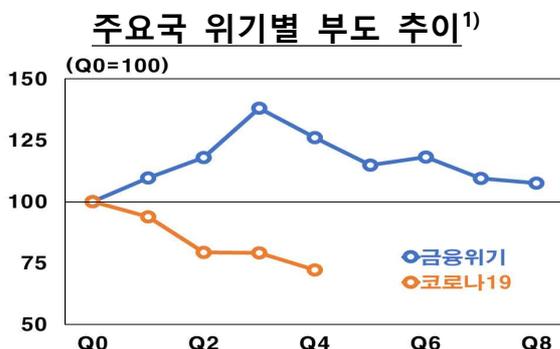
- 팬데믹 이후 재무적 기업파산은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이동제한 및 업황 악화로 폐업하거나 휴업중인 영세업체가 크게 증가

- 부도건수는 저금리, 정부보증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미국 식당의 경우 17%가 장기 휴업하거나 영구 폐업한 것으로 조사(미국식당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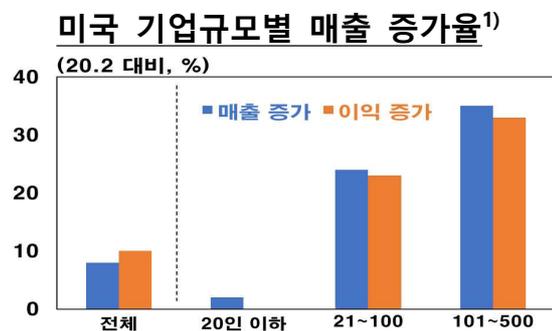
- 영세업체 일부가 장기 휴업의 영향으로 영업재개에 실패하면서 실업이 지속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Dalton et al., BLS , 2020.12월

- 미국에서는 2021.2월 현재 영업재개 이후 규모가 작을수록 매출 및 이익 회복이 더딘 것으로 조사



주: 1) 13개 선진국 기준
자료: IMF



주: 1) 21.2월 현재
자료: American Express

□ (대형기업 시장점유율 확대) 영세업체가 위축되는 대신 대형기업 (superstar companies)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노동 투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Loecker et al., "The rise of market power and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2020.5월

○ 팬데믹으로 온라인 서비스 경쟁력이 중시되면서 하이테크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기업의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

- 특히 아마존(2020년중 매출 38%, 순이익 84% 증가) 등 소매업중 대형기업은 노동수요가 많은 점포 운영보다는 자본투입이 많은 대형 물류시설 구비에 집중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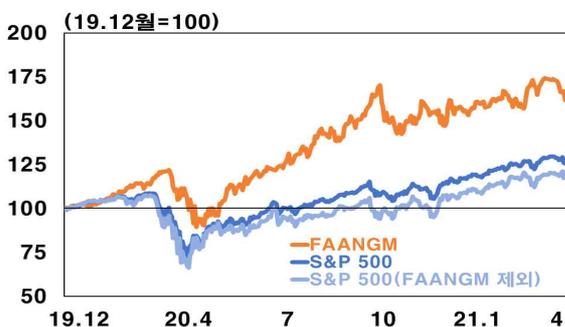
○ 소수 대형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노동투입 비중이 낮아질 가능성

- 대형기업(500인 이상)은 미국 GDP의 56.5%(2014년 기준)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이보다 작은 5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미 중소기업청, 2018.12월)

- 이에 따라 국민소득중 이윤에 대한 배분은 증가하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감소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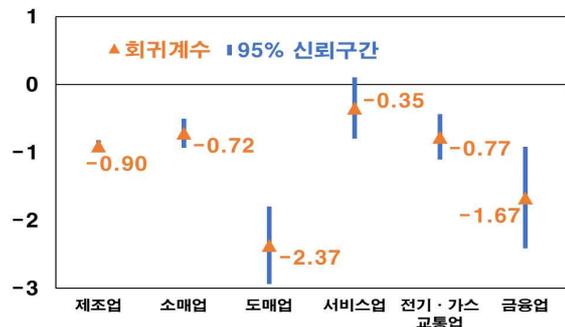
* 미국의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1997~2012년중 -5.7%p)을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 대형기업 집중효과 -4.9%p, 퇴출효과 -2.8%p(높은 노동비용으로 퇴출), 신규진입 효과 2.4%p(시장정착을 위한 이윤 축소)로 분해(Autor et al.)

최근 대형 하이테크 기업¹⁾의 시가총액



주: 1)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 Microsoft
자료: Bloomberg

미국 기업규모와 노동분배율간 관계¹⁾



주: 1) 업종내기업매출비중과 노동분배율간 회귀분석(OLS) 계수값
자료: Autor 등(20.2월)

⇒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세업체가 위축되고 대형기업 시장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증가폭이 종전보다 축소

생산방식 및 소비행태 변화(고용개선 제약)

□ 재택근무, 자동화, 비대면소비 확산 등의 행태 변화는 사무지원, 제조, 식당, 소매 등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IMF)

○ 전문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직종,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등 신규 일자리도 창출되지만 이직*, 훈련 등을 통한 적응에 시간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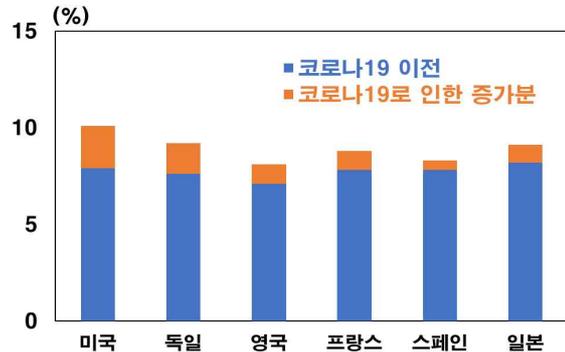
* 맥킨지는 2030년까지 선진국 노동자의 8~10%가 이직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25% 정도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증가분으로 분석

2030년까지 글로벌 일자리 변동 예상

변동폭 ¹⁾	직종
+1%p~	의료보조, 과학·기술·엔지니어링
+0.4~1.0%p	의료전문직, 관리자
+0.1~0.4%p	법률전문직, 크리에이티브·예술
현 수준	교육·훈련
-0.1~0.4%p	공공서비스, 건설, 수리
-0.4~1.0%p	고객서비스, 판매
~-1%p	생산, 창고, 사무지원

주: 1)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동
자료: McKinsey, 2021.2월

2030년까지 글로벌 이직 필요 비율



자료: McKinsey, 2021.2월

□ (재택근무 및 자동화) 재택근무 확산 및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 확대 로 종전 일자리가 상당폭 소멸될 가능성*

* IMF WEO 기자간담회에서 Gopinath 수석 이코노미스트 언급(2021.4월)

○ 팬데믹을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가 일부 지속되면서 운수, 사무실 관리지원, 인근 식당 등 관련 일자리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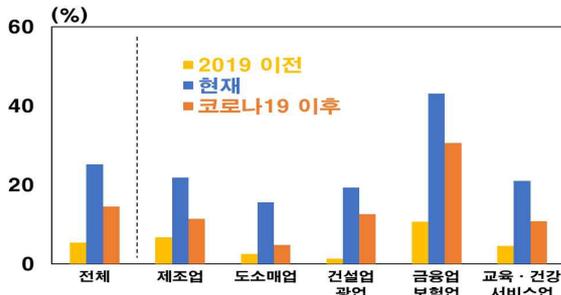
▪ 미국 기업의 경우 직원의 재택근무 일수 비중을 2019년 5.5%에서 2021.2월 현재 25.3%로 늘렸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14.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

* 미 연준, "Firms expect working from home to triple"(2021.2월)

○ 코로나19 확산 이후 감염 위험에 따른 노동생산성 하락 및 방역 관련 비용 증가를 경험하면서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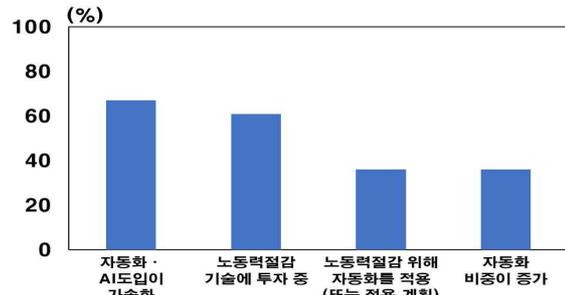
▪ 기업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계기로 노동력 절감 투자가 가속화된 것으로 조사(McKinsey, 2021.2월)

재택근무 도입 현황 및 전망 조사



자료: Fed, Stanford Univ., Chicago Univ.

글로벌 기업 자동화 투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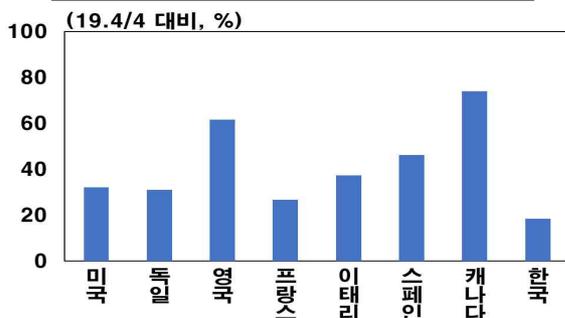


자료: McKinsey, Fed

□ (온라인소비 확대) 온라인소비 확대도 대면서비스업의 노동수요를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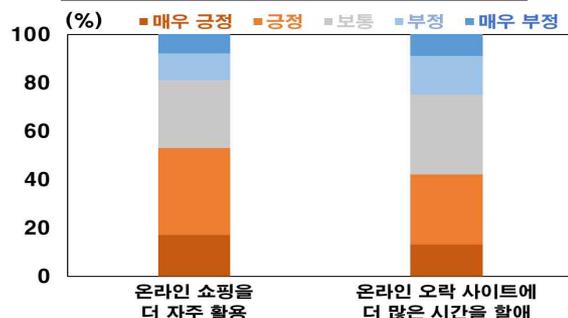
- 코로나19를 계기로 영화관, 식당 등 대면소비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쇼핑, 콘텐츠 스트리밍(Netflix 등), 배달전문식당(ghost kitchen) 등 비대면 소비가 확산
 - 소비자들은 팬데믹 이후에도 상품소비, 여가 등에서 계속 온라인소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UNCTAD, 20.10월)
- 기업이 온라인소비 확대에 대응하면서 대면영업 일자리 감소*
 - * 나이키는 소매점을 거치지 않고 자체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Direct to Consumer)을 확대(2011년 16% → 2020년 35%)
 -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도 온라인(디지털)영업을 확대하는 추세(American Express 550개 업체 조사, 2021.2월)

주요국 온라인 쇼핑 매출 증가율



자료: 각국 통계청

주요국 코로나 이후 온라인소비



자료: UNCTAD

⇒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 경제주체 행태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실직자가 직장 복귀 및 신규 구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 상존

- 고용 충격의 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제고로 상당 부분 상쇄(jobless recovery)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V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주요국의 고용은 경기회복 기대감과 함께 상당부문 반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밑도는 상황
 - 유럽의 경우 고용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이 미미한 근로자도 상당
 - 고용 개선세가 주춤한 가운데 장기실업 및 영구해고 증가 등 실업이 고착화되는 모습도 관찰

- 향후 고용회복 여건을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서비스업 정상화라는 개선요인과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변화 등의 제약요인이 혼재
 - 주요국의 경우 금년 2/4분기부터 보건위기 진정과 더불어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면서 고용여건이 당분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
 - 반면 영세업체 위축 및 대형기업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재택근무, 자동화, 온라인소비 확산 등의 행태 변화의 영향으로 고용확대가 지속적으로 제약*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될 소지

* <참고> “경기회복 시점에서 고용회복 수준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참조

- 이러한 점에서 장기적으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구조에 맞추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혁신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긴요
 - * 전문컨설팅, 크리에이티브 직종, 과학·기술·엔지니어링 등
 - 또한 디지털 전환, 자동화 등에 따른 기술고도화에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Spence 뉴욕대 교수, 21.3월)
 - 아울러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방식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정 및 개인적 삶과 병행할 수 있는 노동참여 및 경력개발 기회를 확대할 필요

<참고>

경기회복 시점에서 고용회복 수준 및 노동시장 미스매치

□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고용회복 정도는 노동투입 비중이 변동했는지 여부에 크게 영향*

* 노동투입 비중이 종전과 동일하다면 고용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겠지만 동 비중이 하락하면(노동생산성 상승으로 GDP가 회복된 경우) 고용은 종전 수준을 하회

□ 업종간 및 기업규모간 회복 격차, 기업 생산방식 변화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 경기회복 시점*에서 고용은 종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

* 2021.4/4분기 또는 2022.1/4분기경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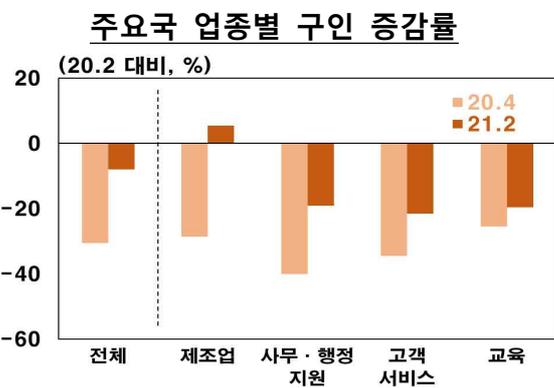
①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영세업체보다 빠르게 종전 수준을 회복하면서 전반적으로 노동투입 비중이 하락(Loecker et al.)

② 동일한 기업이라도 온라인 영업 확대, 노동절감형 자동화 투자 등 종전보다 노동투입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McKinsey)

□ 이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구인·구직간 미스매치가 지속되면서 실업자 및 노동시장 이탈자가 종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

○ 현재 실직자는 대체로 대면서비스업종의 단순직 종사자였던 반면 구인은 제조, 비대면서비스 전문직을 중심으로 증가하는데 기인

▪ 미국 노동시장 미스매치 지수(Lazear-Spiezer mismatch Index)가 높은 수준을 지속(Goldman Sachs, 21.3월)



자료: OECD



자료: Goldman Sachs

《참고자료》

박병걸·오강현·김하은·안준영, “코로나19 백신보급과 글로벌 경기회복 향방”, 한국은행, 2021.3월

Althoff et al., “The city paradox: skilled service and remote work”, Dec.2020

Autor et al, “The fall of the labor share and the rise of superstar firm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2020

Citi, “Prospects for 2021: Will labor markets recover?”, Dec. 2020

___, “Jobless recovery?”, Feb. 2021

Dalton et al, “An update on employment changes by employer siz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ok at 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 microdata”, Dec. 2020

FRB Atlanta, “Firms Expect Working from Home to Triple”, May. 2020

Goldman Sachs, “The Coming Jobs Boom”, Mar. 2021

IMF, “Transcript of April 2021 World Economic Outlook Press Briefing”, Apr. 2021

___,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21

___, “World Economic Outlook”, Apr. 2021

ING, “Eurozone: a labour market in surprisingly good shape ahead of the second wave”, Jan. 2021

Kathryn Kobe et al, “Small Business GDP 1998-2014”,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ec. 2018

Loecker et al., “The rise of market power and the macroeconomic implic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2020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future of work after COVID-19”, Feb. 2021

Michael Spence, “Winners and Loser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Work”, Feb. 2021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2020

Sheiner et al, "How many jobs is the US likely to add this year?",
Brookings, Mar. 2021

UNCTAD, "COVID-19 and E-commerce Findings from a survey of online
consumers in 9 countries", Oct. 2020